부록 해외사례

■ 해외 주요국의 경우 보험산업이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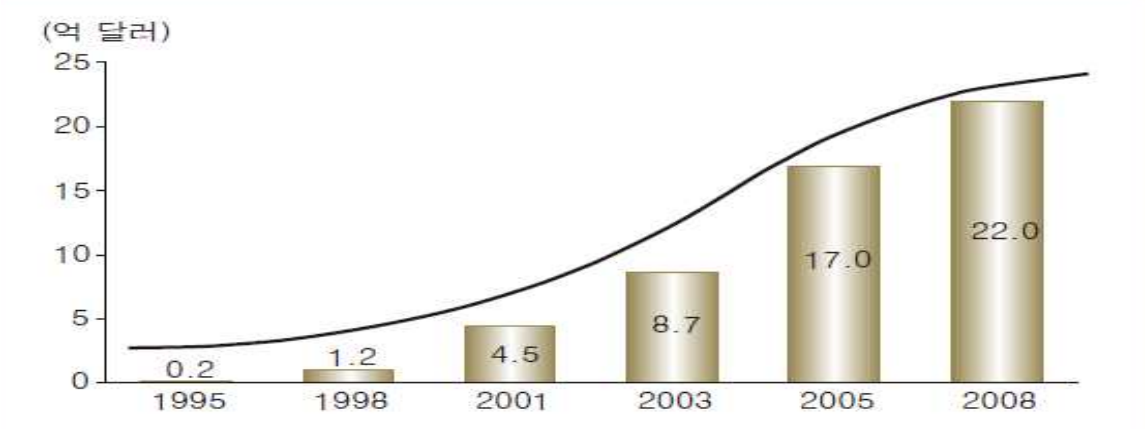
1. 미국

■ **(건강관리서비스 전문회사 등장)** 1990년대 중반,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자 건강관리서비스 전문회사가 생겨났고 급성장하였음.

○ 1998년에 20개도 안 되던 건강관리서비스 판매 전문기업들은 2003~2005년 사이 200개 이상으로 늘었다가 2005년 이후 통합 트렌드에 따라 70개 이하로 줄었음.

○ 1998년 1.2억 US 달러에서 2008년 22억 US 달러 규모로 성장함(연평균 성장률 34%).

〈부록 그림 1〉 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규모



자료: 「건강관리서비스 시장원리와 제도적 지원 병행 필요」. LG경제연구원 Weekly Focus(2009).

■ **(보험회사는 2000년대 초에 건강관리서비스 전문회사를 활용)** 2000년 초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중 만성질환자나 고위험자 등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.

■ **(보험회사는 2006년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공급하기 시작)** 2006년 이후 민간보험회사, 의료기기회사, 병·의원, 통신사업자 등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함.

○ 2006년 이후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팀을 갖추어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직접 공급하기 시작함.

■ **(최근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일반적)** 최근 보험회사들은 내부직영·자회사 또는 제휴를 바탕으로 위험보장과 질병예방 및 치료지원을 연계한 'Total Health Care'를 제공하고 있음.

○ 미국 보험회사의 95%가 가입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, 정부에서 관리하는 메디케이드, VHA(재향군인건강관리기관) 등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※ VHA 헬스코치 서비스 사례

"헬스버디" 라는 단말기를 통해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환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답을 할 경우 "헬스코치(간호사)"의 전화를 받게 되고, 헬스버디와 연동된 혈당계, 혈압계 등으로 생체신호를 계측하면 이는 서비스센터로 전송되고, 그 결과에 따라 헬스코치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

- 울혈성심부전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평가 결과(2002)에 의하면, 병원 입원 60%, 요양원 입소 81%, 응급실 이용 66% 감소 등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.
- 이후 우울증,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, 말기환자 간병 등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

■ **(일반기업은 임직원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확대 추세)** 일반기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 등 외부 회사를 통하여 제공하다가 이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음.

○ 처음에는 기업들이 병원에서 방금 퇴원한 근로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.

○ 그 후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음.

○ 동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이 분야의 전문기업을 인수하거나 제휴 관계를 맺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.

〈부록 표 1〉 시그나와 일반기업의 제휴에 따른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사례

구분	주요 내용
대상	환경서비스 및 에너지 회사: 근로자 45,000명 이상
주요전략	• 고위험에 노출된 대상자를 판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통합급부 및 건강생활지원서비스 활용 - 장해를 포괄하는 통합건강모형(IPHT: Integrated Health Model) - 근로자와 배우자의 의료비상환계좌 가입을 위해 급여소득세 혜택 - 맞춤화된 회사 브랜드 “Get Well"을 통한 종합적 의견 교환 - 통합건강모형과 단기장해를 결합한 건강생산성 전략에 초점을 맞춤
주요성과	• 가입자의 경우, 최근 4년 간 총 4,160만 달러 절약 • 연평균 의료비증가율: 5.6%(산업전체 연간의료비 증가율은 9.6%) • 예방서비스 방문객 22.1% 증가

자료: 미국 시그나사가 제공한 자료임.

2. 일본

■ 급속한 증가추세인 당뇨병,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관련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적 보험은 물론 민간보험회사도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○ 일본정부는 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고 공적 건강생활서비스 실시율을 2010년 45%에서 2015년 60%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■ 동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주체를 보험회사 등 주식회사에 개방하고 있음.

○ 의료기관 3,042개사 외에 비의료민간회사 760개사가 참여 중임.

- 참여보험회사: 동경해상, 메이지야스다생명, 니혼생명, 도카이생명 등

〈부록 표 2〉 일본의 건강생활 서비스 참여기관(2008)

구분	특정검진기관 수 (%)	특정보건지도기관 수 (%)
병원	2,274 (20.1)	1,303 (34.3)
의원	7,496 (66.2)	1,739 (45.7)
주식회사	4 (0.0)	139 (3.7)
기타	1,545 (13.6)	621 (16.3)
합계	11,319 (100.0)	3,802 (100.0)

자료: 「건강관리서비스 시장원리와 제도적 지원 병행 필요」. LG경제연구원 Weekly Focus(2009).

■ 동경해상지주회사(Tokio Marine Holdings, Inc.)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문 자회사인 동경해상일동메디컬서비스 (TMS; Tokio Marine & Nichido Medical Service Co.)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.

○ 1987년 설립된 TMS는 자본금 100백만 엔, 총자산 3,262백만 엔, 2007년 매출 21억 엔 규모의 회사임.

○ TMS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지원서비스, 의료상담서비스, EPA 서비스, 의료전반의 심사 및 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종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- 산업보건지원서비스는 기업의 노무관리부문 또는 건강관리부문의 요구에 부합하여 건강데이터 관리 지원, 산업醫 등 의료직의 건강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것임.
- 의료상담서비스는 다양한 진료분야의 전문 의사 및 간호사에 의한 의료, 건강, 간병에 관한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.
- EPA(Employee Assistance Program) 서비스는 종업원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건강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.

〈부록 표 3〉 일본의 동경해상일동메디칼의 서비스 내용

분류	내 용
산업보건 지원서비스	• 기업의 건강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자문 – 노동안전위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여 건강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 – 기업의 산재소송 리스크에 대비한 건강관리체제 수립을 제안 – 확대되는 건강관리 사내 시스템 수립 • 전국 사업장에 일괄관리를 실시 – 전화, 우편, 이메일 등으로 의료진의 통일된 서비스를 전국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제공
의료상담 콜센터	• 응급의료 대응 서비스 • 전문의료 예약상담 서비스 •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
EPA 서비스	• 스트레스 레벨 체크에 의한 셀프케어 서포트 • 메일, 전화, 대면에 의한 상담 서비스, 전국 제휴의료기관의 안내 • 종업원의 스트레스 성향분석 보고 및 개선방안 제안, 휴직 및 복직 지원 서비스, 각종 연수 프로그램 제공
의료전반의 심사 및 분석 서비스	• 후유장해 등급 등의 의견서 작성 • 의료 관련 분석, 진찰록 번역 및 문헌 검색 • 엑스레이 사진 복사 수탁 • 의료전반에 관한 상담 • 생명보험 관련 진단醫 소개 및 인수심사, 지급심사

자료: http://www.tokio-mednet.co.jp